

## 위기가정환경을 설명하는 중다변인모델 분석

양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부모가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부모의 정신병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 폭력, 갈등같은 다른 여러 부정적인 특징들을 빈번히 보고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밀집한 위기가정일수록 아동이 정신병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위기가정이 안고 있는 중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부적응의 발달이 설명될 수는 없다. 위기가정에서 발견되는 변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 특히 부모가 커다란 역할을 하는 아동의 초기 발달단계에서 부모변인들이 어떤 인과적 관계를 가지면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가 밝히는 중다변인모델이 위기가정이 가지고 있는 체계와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가정환경의 다른 변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채 특정 변인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최근들어 정신병리적 문제의 발달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고 있다. 프로이드이래 성인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아동기, 유아기까지 추적했다 (Achenbach, 1990; Garber, 1984). 임상가나 의사들이 성인의 정신병리적 문제의 원인을 어린시절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 어떤 필연적인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행동에서 성인기의 정신병리를 예측하려고 할 때 문제는 보다 복잡해진다 (Sroufe & Rutter, 1984).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성인기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병리적 문제를 발전시킬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이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비행,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약물 남용, 낮은 학업 성취, 우울같은 증상을 보인다 (El-Guebaly & Offord, 1977; West &

Prinz, 1987; Murray, 1989; Windle, 1990). 그러나 아동기의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들중 어느 것이 성인기의 정신병리를 예측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이 없다. 심지어 같은 알코올가정에 태어난 아동들이 다른 병리적 행동을 보이고 다른 예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알코올가정의 아동들이라 하여도 서로 다른 발달적 궤도를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데 있다. 같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형제라도 그들의 주관적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아동기의 행동에서 성인 정신병리를 예측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아동의 행동에 다양한 변인들이 관계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변인들이 아동의 성장 과정과 함께 시간적으로 다르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장애의 다양한 발달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임상심리학자

와 발달병리학자들은 위기집단에 속하는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을 추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기연구 (risk research)라고 부르는데 연구대상인 위기집단은 연구자가 어떤 정신병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위기집단이란 부모의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같은 병리적 문제나 극도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안녕과 생존이 위협을 받는 어린이를 말한다 (Radke-Yarrow & Sherman, 1990). 위기집단의 어린이는 성장과정에서 여러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어떤 장애-예를 들면, 부모가 가진 정신병같은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집단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Richters & Weintraub, 1990). 이전의 임상연구들이 진단을 이미 받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애의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추적하는 위기연구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와는 달리 장애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운데 사회적으로 높은 숫자를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ydellius, 1984; Knop, Teasdale, Schulsinger & Goodwin, 1985). 정상 가정의 아동들보다 여러 정신병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코올가정의 아동들은 위기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아동이 알코올가정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알코올문제나 다른 병리적 문제를 나중에 일으킬지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Fitzgerald, Zucker & Yang, 1993). 또한 아동이 어떤 위기집단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Lewis, 1990). 위기 집단의 아동들의 발달 결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장애의 다양한 발달과정은 중다변인들의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Zucker, 1988, 1989).

위기가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첫번째 과정은 일

단 위기가정의 아동의 발달적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코올가정은 부부간의 갈등, 가족구성원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폭력, 빈곤, 실직, 사회적 고립, 부모의 정신병리적 문제 등으로 빈번히 특징지어지고 있다 (West & Prinz, 1987; Seilhamer & Jacob, 1990; Russell, 1990). Zucker (1988, 1989) 그리고 그의 동료들 (Zucker & Fitzgerald, 1991; Zucker & Gomberg, 1986)은 알코올중독에 대한 여러 종단연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인기의 알코올중독이 연속적인 발달 현상임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그 변인들은 빈약한 자녀양육방식, 부부간의 높은 갈등, 부모의 알코올중독,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성적 일탈,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 높은 활동수준, 낮은 학업 성적 그리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이었다. 이런 변인들이 성인기에 알코올중독으로 발전하는 사람의 환경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알코올가정 환경에서 빈번히 보고되는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하는 것이다. 알코올가정 환경에서 발견되는 변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정환경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itzgerald, Zucker와 Yang (1993)은 알코올 문제를 발달적 체계(system)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환경이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된 인접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달의 시간속에서 일차적 체계 (개인 혹은 가정)는 학교, 이웃, 직장, 지역체같은 인접 체계와 상호교류하는 것이다. 한 인접 체계가 가정의 한 구성원에 영향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인접 체계가 가족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이라는 체계의 조직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중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집단을 연구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평가하고 가족이라는 체계 자체를 평가함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족 체계와 각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상호교류를 통하여 변화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접체계가 일차적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Zucker와 Fitzgerald (1991, 1992)는 이러한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알코올 가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Michigan State University Longitudinal Study에서 일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위기가정환경을 설명하는 중다변인모델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위기가정환경의 특징들

MSU종단연구는 현재 3-6세의 남아를 가진 가정으로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가 있으나 임상기관에 있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들어 두번째 단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아직은 종단적 연구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종단연구팀은 아동, 부모, 교사, 의사, 연구자와 같은 다양한 보고자와 설문지, 면접, 검사와 같은 70개 이상의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알코올가정과 비교할 집단으로 비슷한 거주 지역에서 부모가 알코올문제가 없는 가정을 모집

하였다.

연구의 처음 단계는 주로 알코올가정의 현재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MSU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알코올가정의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비교집단의 아이들과 그리 두드러지게 차이나지 않았다. 예일발달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운동 영역만을 제외하고 특수운동, 개인적-사회적 기술, 언어, 적응적 기술면에서 비교집단의 아동이 근소한 그러나 의미있는 차이로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Yang, 1992; Noll, Zucker, Fitzgerald & Curtis, 1992). 그러나 두 집단의 아동들은 부모가 보고하는 행동문제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Yang, 1992; Fitzgerald, Sullivan, Ham, Zucker, Bruckel & Schneider, 1993). 길은 Achenbach의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알코올중독자나 우울증 아버지와 통제집단의 아버지의 10-18세의 자녀들을 측정한 Jacob와 Leonard (1986)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두 연구의 대상인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들이 비임상적 집단으로 임상적 집단을 사용하는 다른 연구들보다 피험자의 정신병리적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Russell, 1990; West & Prinz, 1987).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가정의 기능이 덜 파괴되고 아동의 정신병

표 1. 알코올가정(N=131)비교가정(N=35)의 부모변인의 비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알코올문제	+	+	+	+
반사회적행동	+	+	-	+
우울	+	-	+	+
성격	+	-	-	+
스트레스	+	-	-	+
사회적지지	-	-	-	-

+는 t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 -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는 알코올가정에서 임상적 범위의 아동(N=100)과 비임상적 범위의 아동(N=31)의 부모변인의 비교(Yang, 1992)

리적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알코올가정의 아동들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Yang(1992)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알코올가정환경에서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부모변인과 아동변인을 설정하였다. 표 1에는 알코올가정과 비교가정의 부모의 특성들을 비교한 결과가 나와있다. 알코올가정의 아버지는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 모든 부모변인에서 보다 부정적 상태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알코올문제, 반사회적 행동, 성격적 문제, 스트레스, 우울을 비교가정의 아버지보다 더 호소하였다. 그러나 알코올가정의 어머니는 비교가정의 어머니보다 오직 알코올문제와 반사회적 행동을 더 보고하였을 뿐이다. 부모변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비교가정보다 알코올가정의 사회적 환경에 위기요인이 더 밀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Zucker (1989)는 위기 (risk)는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반복하여 나타남으로써 문제가 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개인적인 혹은 맥락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어떤 개인 환경에 이런 위기 사건이 밀집해 있다면 혹은 위기 사건이 반복하여 출현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증대한다는 것이다. 알코올가정에서 부모의 알코올문제, 약물사용, 반사회적 성격, 우울증, 빈곤,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은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 (West & Prinz, 1987; Seilhamer & Jacob, 1990; Leonard & Jacob, 1988).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West & Prinz, 1987; Werner, 1986; McCord, 1988). Yang(1992)의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교가정보다 알코올가정의 사회적 환경에 위기요인이 더 밀집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환경에 이런 요인들이 밀집할수록 아동의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문제는 아동의 환경의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

게 작용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위기집단인 알코올가정의 환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Achenbach의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로 측정된 아동의 행동문제 총점에 근거하여 알코올가정의 아동을 임상적 범위와 비임상적 범위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Achenbach과 Edelbrock (1983)는 그들의 비임상적 표집에서 90퍼센타일인 63점 (T점수)이 임상적 집단과 비임상적 집단을 구별하는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알코올가정의 아동의 30%가 임상적 범위에 들었다(Yang, 1992; Reider, 1991). Yang은 알코올가정인 두 집단의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 검사했다. 그 결과 비임상적 범위의 가정에 비해 임상적 범위의 가정의 어머니는 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표 1에서 \* 표시된 부모변인의 결과를 보면, 임상적 범위의 아동의 어머니는 알코올문제, 반사회적 행동, 우울증, 성격, 스트레스를 보다 보고하였다. 그에 반해 임상적 범위의 아동의 아버지는 비임상적 아동의 아버지 보다 오직 알코올문제와 우울을 더 호소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분석을 알코올가정과 비교가정에 하였을 때 나온 결과와 아주 대조되는 것이다. 알코올가정은 비교가정보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와 관련된 위기요인이 밀집한 반면, 알코올가정에서 임상적으로 손상된 아동의 환경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위기요인이 밀집해 있다. 알코올가정의 아버지가 비교가정의 아버지보다 부정적 특성을 더 높고 보이고 있는 것은 MSU종단연구가 알코올가정을 아버지의 알코올문제에 근거하여 모집한데서 온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알코올가정안에서 아동이 임상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가정일수록 아동이 정상범위에 있는 알코올가정보다 어머니가 부정적 특성을 더 높고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는 알코올가정에서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가 아동의 적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위기로써 작용하는 요인들의 효과는 부가적이라기보다 요인들의 효과를 서로 증폭시켜줌으로써 위기요인들의 전체적인 효과는 위기변인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Rutter, 1983, 1987).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문제, 반사회적 행동, 우울을, 어머니가 우울을 높이 보고한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문제와 우울만을 호소한 가정보다 위기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특성같이 위기요인이 밀집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족이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에서 발견되는 위기요인의 효과가 단순히 모든 위기 사건들을 더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위기요인들이 어떻게 가족체계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느냐하는 것이다. 알코올가정과 비교가정의 비교에서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가족이라는 체계안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족 체계의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다. 알코올가정은 이미 비교가정보다 많은 문제를 보고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머니마저 손상된 기능을 보일 때 그 가정은 어머니가 손상된 기능을 보이지 않은 가정보다 심각하게 파괴된 가족 체계를 보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것이다. 이제는 알코올가정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안에서 작용하는지 고려해보야 할 차례이다.

## 위기가정환경의 중다변인의 상호작용

위기가 밀집한 알코올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부정적인 가정환경을 나타낼 것이다. MSU 종단연구에서 알코올가정환경을 다룬 연구가 있는데, 알코올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비교가정의 부부보다 그들의 관계를 보다 적대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Zucker, Weil, Baxter, & Noll, 1984). 또하나의 연구는 70 알코올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지각과 최근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간의 관계를 보았다 (Reider, Zucker, Noll, Maguin & Fitzgerald, 1988). 지난 한해동안 아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보고한 알코올남편은 가정의 응집력, 조직화, 오락적 활동을 낮게, 가정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알코올남편에 대한 높은 폭력수준을 보고한 아내 역시 가정 환경에 대해 유사하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내에 대한 높은 폭력수준을 보고한 남편은 알코올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이 보다 심하고 나이가 어린 집단이었다고 한다.

알코올가정환경에 대한 MSU종단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알코올가정이 비교가정보다는 위기가 밀집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가정의 부모가 비교가정의 부모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보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는 알코올가정에서도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모일수록 가정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심리사회적으로 손상된 기능을 보일수록 알코올가정의 체계와 기능은 보다 파괴되어 있을 것이다. Moos와 Moos (1984)는 음주문제가 심각하고 우울증과 신체적 증상을 더 호소하는 알코올중독자의 가정이 보다 논쟁이 많고 가족의 응집성과 표현력이 적고 그리고 배우자간에 가정환경에 대한 일치도가 낮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한쪽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의 아동의 다양한 발달결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배우자의 역할을 들고 있다 (Fisher, Kokes, Coles, Perkins & Wynne, 1987).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가 어떤 특성을 갖

느냐는 알코올가정의 기능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Moos와 Moos (1984)는 부부가 모두 우울과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알코올가정은 부부의 한쪽만이 이런 불평을 하는 가정보다 논쟁이 높고 응집력이 낮다고 하였다.

위기집단에 대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부모의 특징에 관하여 두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손상된 부모의 정신병리가 심각하고 오래될수록 그 가정의 기능 (Moos & Moos, 1984; Reider, Zucker, Noll, Maguin & Fitzgerald, 1988)과 자녀의 적응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이다 (Jacob & Leonard, 1986; Fisher, Kokes, Coles, Perkins & Wynne, 1987). 둘째는 손상되지 않은 부모의 개인적 기능의 수준과 아동과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Jacob et al., 1986; Fisher et al., 1987).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는 빈번히 신체적 증상, 우울, 반사회적 행동, 알코올 문제 등을 보고하고 있다 (Moos et al., 1984; Reider et al., 1988). 손상된 심리사회적 기능을 가진 배우자는 알코올중독자인 남편과 관련된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적 기제로 작용하기 보다 아동의 정신병리를 증가시키는 위기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다. 그러나 손상되지 않은 심리사회적 기능을 가진 배우자는 아동을 위하여 완충체계로 작용하며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가져온 손상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이다 (Rutter, 1987; Garmezy, 1981).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의 정신병리와 심리사회적 기능은 아동과 부정적 환경을 증개하는 역할과 관련됨으로써 아동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준다.

Yang(1992)은 MSU중단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131 알코올가정을 대상으로 부모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일종의 과정모델을 발전시켰다. 그림 1에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

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부모의 정신병리적 문제라고 하겠다. 어머니가 정신분열증, 우울증, 혹은 성격장애같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을 연구한 Sameroff와 Seifer (1990)에 따르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병리적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고 심각한가의 문제였다고 한다. 알코올가정에서도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과 알코올문제가 오래되고 심각할수록 어린이의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병리적 문제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다른 부모변인들에 의해 증개된다고 생각된다. Belsky (1984)의 부모양육모델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두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특성이었다. 부모의 정신병리적 문제나 다른 부모의 특성이 부모가 아동과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라고 보았다 (Colletta, 1981; Pearlin & Scholler, 1978; Belsky, 1984). 특히 위기가정에서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의 역할을 보기 위하여 배우자의 심리적 안녕에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심리적 안녕과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변인이 주는 효과를 고려하였다.

그림 1에 나와있는 이론적 모델을 실제로 검증한 측정모델의 하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통로모델의 변인들이 어떻게 측정되고 검증되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9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의 학술발표논문집에 제시된 논문을 보기 바란다. 그림 2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견하기 위한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를 위한 모델이다. 실제로 측정된 모델은 이론적 모델보다 훨씬 화살표의 방향이 복잡하게 나왔으나 변인들간의 관계는 대체로 이론적 모델에서 예측한대로 의미있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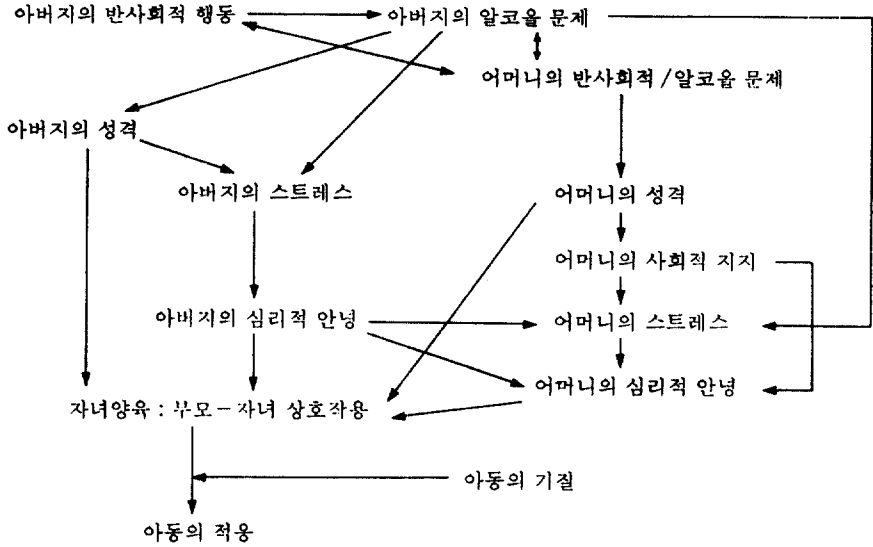


그림 1. 알코올가정의 아동의 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부모 변인들을 위한 이론적 모델(Yang, 1992)

가장 커다란 차이는 부모와 아동 관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가 부모변인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해주지 못함으로써 실제 통로모델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Yang(1992)의 논문에 나와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또한 이 모델에는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과 알코올문제변인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과 알코올문제와 어머니의 반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거나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는 빈번히 정신병리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배우자의 이런 문제가 결혼 전에 이미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알코올중독자인 남편과 살면서 생겼는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Yang의 다른 모델에서 아버지의 현재 우울상태를 가장 잘 예측하는변인은 아버지의 스트레스이고,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아버지의 알코올문제라는 결과에 미루어 아버지의 정신병리적 문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의 모델에서 보면 부모의 현재의

우울상태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장 의미있게 예견하고 있다. 아버지의 우울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현재의 우울상태는 어머니의 음주문제, 성격변인인 자기능력, 사회적 지지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보면 아버지는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다른 특성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알코올가정환경에서 부모변인들의 관계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 논의

위기연구는 장애의 발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장애의 원인을 밝히는데 발전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위기환경에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생존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Masten & Garmezy, 1985). 부모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





기능자체에 영향을 준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의 손상된 심리사회적 기능은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족체계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에 배우자가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다면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와 관련된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적 기제로 작용하기 보다 아동의 정신병리를 증가시키는 위기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그러나 손상되지 않은 심리사회적 기능을 가진 배우자는 아동을 위하여 완충체제로 아동과 환경을 중개함으로써 위기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Yang (1992)은 이제까지 알코올가정 연구에서 관찰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모델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만약 이 모델이 다른 알코올집단을 설명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 모델은 알코올가정의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Yang의 모델은 알코올가정환경을 설명하는 독특한 모델이라기보다 위기에 있는 가정환경의 기본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모델이 다른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앞으로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다양한 발달결과를 가져오는 위기가정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다변인이 들어가는 과정모델이 가장 적합하나 (Zucer, 1988, 1989) 변인들간의 관계는 이론적인 논쟁이 뜨거운 것만큼 검증자체도 그리 쉽고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발달의 초기단계에 있는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차 가정의외의 환경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아동 자신의 변인만이 아니라 다른 인접체계의 변인들이 영향을 보다 발휘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1990). What is "developmental" about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4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lletta, N. D. (1981). Adolescent mothers's vulnerability to stres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9, 50-54.
- El-Guebaly, N., & Offord, D. R. (1977). The offspring of alcoholics : A critical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357-365.
- Fisher, L., Kokes, R. F., Cole, R. E., Perkins, P. M., & Wynne, L. C. (1987). Competent children at risk : A study of well-functioning of disturbed parents. In E. J. Anthony & B. J. Coh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N. Y. : The Guilford Press, 211-228.
- Fitzgerald, H. E., Zucker, R. A., & Yang, H-Y. (1993). Developmental systems theory and alcoholism : Analyzing patterns of variation in high risk families.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s, Toronto, Canada.

- Fitzgerald, H. E., Sullivan, L. A., Ham, H. P., Zucker, R. A., Bruckel, S., & Schneiner, A. (1993).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sons of alcoholics : Early evidence for the onset of risk. *Child Development, 64*, 110-123.
- Garber, J. (1984). Classification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5*, 30-48.
- Garmezy, N. (1981). Children under stress : Perspectives on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to psychopathology. In A. I. Rabin, J. Aronoff, Aj. M. Barclay, & R. A. Zucker (Eds.), *Further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 Y. : Wiley, 196-269.
- Jacob, T., & Leonard, K. (1986). Psychosocial functioning in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depressed fathers, and control fa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 373-380.
- Knop, J., Teasdale, T. W., Schulsinger, F., & Goodwin, D. W. (1985).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men at high risk.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6*, 273-278.
- Leonard, K. E., & Jacob, T. (1988). Alcohol, alcoholism, and family violence. In V. B. Van Hasselt, R. L. Morrison, A. S. Bellack, & M. Herson (Eds.), *Handbook of Family Violence*. N. Y. : Plenum Press, 383-406.
- Lewis, M. (1990). Challenges to the study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 Y. : Plenum Press, 29-40.
- Masten, A. S., & Garmezy, N. (1985). Risk,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8, N. Y. : Plenum Press, 1-51.
- McCord, J. (1988). Identifying developmental paradigms leading to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 357-362.
- Moos, R. H., & Moos, B. S. (1984).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alcoholism : III comparing functioning in families of alcoholics and matched control famil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111-118.
- Murray, J. B. (1989). Psychologists and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Psychological Reports, 64*, 859-879.
- Noll, R. B., Zucker, R. A., & Fitzgerald, H. E., & Curtis, W. J. (1992). Cognitive and motor achievement of sons of alcoholic fathers and controls :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65-675.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021.
- Radke-Yarrow, M. & Sherman, T. (1990). Hard growing : children who survive.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97-119.
- Reider, E. E., Zucker, R. A., Noll, R. B., Maguin, G., Fitzgerald, H. E. (1988). Alcohol involvement and family violence in a high risk sample : I. Spousal violence.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

- sociation Meetings, Atlanta, GA.
- Reider, E. E. (199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psychopathology, family conflic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young alcoholic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Richters, J., & Weintraub, S. (1990). Beyond diathesis : toward an understanding of high-risk environment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96.
- Rydellius, P. (1984).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In D. W. Goodwin, K. T. Van Dusen, & S. A. Mednick (Eds.), *Longitudinal research on alcoholism*. Boston : Kluwer-Nijhoff, 27-37.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42.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meroff, A. J., & Seifer, R. (1990). Early contributors to developmental risk.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66.
- Seilhamer, R. A., & Jacob, T. (1990). Family factors and adjustment of children of alcoholics. In M. Windle & J. S. Searles (Eds.), *Children of alcoholics : Critical perspectives*. N. Y. : The Guilford Press, 168-186.
- Sroufe, L. A., & Rutter, M. (1984). The doma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7-29.
- Werner, E. E. (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 34-40.
- West, M. D., & Prinz, R. J. (1987). Parental alcoholism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02, 204-218.
- Windle, M. (199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attributes of children of alcoholics. In M. Windle & J. S. Searles (Eds.), *Children of alcoholics: Critical perspectives*. N. Y. : The Guilford Press, 129-167.
- Yang, H-Y. (1992). *Causal models of alcoholic family environment predicti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Zucker, R. A., Weil, C. W., Baxter, J. A., & Noll, R. B. (1984).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and individual psychopathology in young families at high risk for the development of alcoholism. Presented at the Society of Life History Research in Psychopathology Meetings,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 Zucker, R. A., & Gomberg, E. S. L. (1986). Etiology of alcoholism reconsidered: The case for a biopsychosocial process. *American Psychologist*, 41, 783-793.
- Zucker, R. A. (1988). Developmental factors

- and risk and the beginnings of alcohol related problems. Presented at 17th International Medical Advisory Conference.
- Zucker, R. A. (1989). Is risk for alcoholism predictable? A probabilistic approach to a developmental problem. *Drug and Society*, 4, 69-93.
- Zucker, R. A., & Fitzgerald, H. E. (1991). Early developmental factors and risk for alcohol problems.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5, 18-24.
- Zucker, R. A., & Fitzgerald, H. E. (1992). Risk and coping in children of alcoholics: Years 6 to 10 of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Longitudinal Study. Grant proposal submit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4. Vol. 7, No. 1, 124-136.

## **A Multivariate Model Explaining the Environment of High Risk Families**

**Hae-Young Yang**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Ewha Women's University**

Families with parental alcohol problem are frequently described as showing not only poverty, violence, and family conflict but also parental psychopathological problems.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may be at great risk for the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 if they are exposed to such environment with dense risk factors. It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evelopmental outcome of child by finding out only multiple problems of his risk environment. Without considering interrelations among variables describing the functioning of alcoholic families it is impossible to infer how and why certain characteristics of either the child or the environment are casually related to developmental outcome. Especially a process model of the functioning of young alcoholic families will display how parents are involved in developmental process of their young children. Adaptation as well as maladaptation of child at risk will be explained by multivariate process model showing dynamic functioning of risk family environment.